

민주 “하나 되어 전북 대도약 이끈다”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 지선 승리 힘찬 출발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 선대위원장 윤준병)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준병 총괄선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공동선임선대위원장, 이성운 공동선임선대위원장, 진성스님, 황규택·전영배·윤혜아·조성현·양지성 공동선임선대위원장과 조지훈 총괄공동선대본부장,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박수형, 강정희, 안윤주, 송승룡 후보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윤준병 총괄선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전북의 새로운 대도약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처럼 다가온 전북의 봄을 민주당과 함께 미래로 전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처럼 그늘의 92%로 투자와 피지킴이 중심 산업 재편 등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전북 대도약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지만 탈락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 뛰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운 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 “전북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민금 투자와 피지킴이 산업 등 전북 발전의 기회가 왔다”며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전북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영배 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 “지금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라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 도지사, 시·군 의원까지 힘을 합쳐야 전북 발전의 기

회를 살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진성 스님은 “종교는 다르지만 민주당과 함께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했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성현 위원장은 “이원택 후보에게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진심을 느꼈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후보는 “개인의 재능은 승리를 만들지만 훌륭한 팀워크는 우승을 만든다”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과 전주의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팀은 이원택과 조지훈”이라며 “전북 정치의 중흥과 미래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의 삼중 위기를 막아내고 가장 강력한 전북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대도약의 길로 갈 것인지, 고립과 퇴행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혁신, 체감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모아 현대차 투자, 재생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끌어오겠다”며 “집권여당 도지사로서 전북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일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구호 아래 선대위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성장공사’ 설립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1호 공약 발표 미래산업 투자·성장펀드 조성 등 전남 “스스로 성장하는 전북 만들 것” 포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전북성장공사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전북의 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성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전북형 성장엔진을 구축하겠다”며 미래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산업화, 성장펀드 조성 등을 집담할 전북성장공사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AI 혁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대한민국 산업을 다시 그리고 있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 시기”라며 “전북성장공사를 통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장 정책은 투자협약과 외형적 성과 중심에 머물렀다”며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성장공사는 단순한 투자유치 기관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전북형 성장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과 미래산업 투자, 성장펀드 운영,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핵심 전략으로 △전북 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미래산업 집중 투자 △신산업·기업·인재를 연결하는 성장 컨트롤타워 구



숙 △도민 참여 성장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매출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전북형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100개와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500개를 키우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또 AI 반도체와 미래차, 농생명 바이오, 첨단소재, 방위산업, 그린 수소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민금을 AI 반도체와 RE100 산업 단지가 결합된 서남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조 원 규모의 전북형 성장펀드를 조성해 성장의 성과가 외부 자본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와 도민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성장공사는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도민의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원팀이 돼 전북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는 “지원받는 전북에서 스스로 투자하고 성장하는 전북으로 전환하겠다”며 “민주당 원팀 도지사로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혈세 75억 어디에 썼나?”

공신연·내란청산 민중위 예산·감사결과 공개 촉구

공직공약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전국중앙 총재 나유인)과 12·3 내란청산 민중위원회(이광익 목사) 소속 시군지역 지부장 등 회원 10여 명이 비를 맞아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 구조와 정책 검증 절차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3년간 편성된 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이 약 159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2025년에 집중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신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예산 총액은 △2024년 4억4,208만 원 △2025년 78억 2,565만 원 △2026년 3월 기준 78억7,57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집행액만 67억8,692만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단순히 예산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시점과 구조, 지역 편중 여부가 핵심”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 집행된 만큼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큰 단일 사업으로 200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32억2,000만원 규모 가운데 30억8,947만 원이 집행됐으며, 2026년에도 이월 예산을 포함해 41억2,85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홍보 예산 상당 부분이 해외보다 국내, 특히 수도권과 전북 지역 중심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KTX 역사와 공영주차장 광고, 시·군 홍보단 운영, 이벤트성 행사 및 캠페인 등이 주요 집행 내역으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제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인지, 정치적 치적 홍보 성격이 강한 것인지 도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연구용역 비공개 문제도 제기됐다.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1억 600만 원)은 정보공개법상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으며, 이후 경제성 분석 수치가 기존 1.03에서 0.91로 수정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10개 광역자치체 분산 개최를 전제로 한 기본계획 용역 역시 결과보고서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십억 원의 홍보비는 이미 집행됐지만 핵심 판단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증보다 홍보가 앞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공직공약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과 12·3 내란청산 민중위원회 소속 시군지역 지부장 등 회원 10여명은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 구조와 정책 검증 절차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신연은 일부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군 홍보단 활동이 특정 정치인의 재선 활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관련 조직 운영 방식과 예산 지원 내역 참여 인사 구성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23 새민금 세계스카우트 캠프비 파행 사태와 관련한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단체는 “당시 환경단체들이 폭염·배수·위생시설 문제 등을 사전에 경고했지만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를 사실상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비 실패 이후 정부의 새민금 SOC 예산 약 5,147억 원 삭감 논란이 이어졌다”며 “당시 도정 책임자였던 김관영 전 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신연과 내란청산민중위원회는 “2006 올림픽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원팀으로 정읍 승리”... 엄지척 선대위 출범

민주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엄지척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학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형 선대위로 꾸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본선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장병운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최종필 전북사남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학수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을 치렀던 안수용·이상길·김대중·최도선 전 예비후보를 비롯해 정태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장, 오종태 정읍시제천위원회 이사장 등이 합류했다.

특히 이번 선대위 구성은 경선 경쟁 후보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원팀 선대위’ 형태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 통합과 함께 지역 각계 인사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정읍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선 8기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정읍 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원팀 민주당’으로 무주지역 필승 다짐

민주 무주 선대위 통합 출범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통합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호영 안주진안무주 지역위원장,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통합을 위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출정식 이후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와 유승열 도의원 후보, 오순덕 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무주군종합복지



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후보자들은 복지관에서 배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대책위는 이번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거리 인사와 정책 홍보, 민생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전북 정치 혁신 새 대안”... 혁신당 중앙선대위, 군산서 현장 회의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군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 지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점검과 민심 청취에 나섰다.

중앙선대위는 이날 군산시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전북 정치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전체와 균형의 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후·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정춘생·김준형 선임선대위원, 김선민·백선희·차규근 선대위원, 이해민 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부안 등 방문, 후보 지원 유세

참석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독점 정치 구조 속에서 경쟁과 책임정치가 약화됐다”며 “조국혁신당이 전북 정치 혁신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낡은 일당 독점 정치를 깨고 전북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열겠다”며 “경쟁과 경쟁 없는 독점 정치는 전북 발전을 멈춰 세운다. 조국혁신당이 전북 정치를 깨우는 메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맞춤형

형 사회권 공약을 소개하며 “교육·일자리·주거 정책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봄이 보장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당의 깃발이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30년 실물경제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선임선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문제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방

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선대위원장은 “호남 정치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며 “기득권 독점 정치를 넘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는 회의 직후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들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선대위 관계자들은 현장 의견을 들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중앙선대위는 이후 부안군과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후보 지원 유세와 시민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취재반